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과 「허생전」에 나타난 자본의 양상

김영미*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자본
- III. ‘양반’이라는 상징자본의 몰락, 「양반전」
- IV. 경제자본의 확대와 그 딜레마, 「허생전」
- V. 맺음말 - 제 인물들의 상관성과 풍자성

【국문초록】

「양반전」과 「허생전」은 조선 후기 경제관념이 농후하게 드러나는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으로, 자본의 위력이 두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매개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양반이 다른 계급과 구별 짓는 ‘문화자본’, 사족으로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창출하는 ‘사회자본’, 양반의 제 자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양반전」과 「허생전」을 분석해 보았다.

기존 ‘양반’이라는 신분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며 가장 강력한 상징자본이었다. 그런데 「양반전」에서는 사족으로 다른 계급과 구별 짓는 정선 양반의 ‘글 읽기’가 경제자본의 빈약함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선 양반의 무능함은 관찰사, 양반의 아내, 양반 신분을 매매하려는 부자에 의해 차례로 풍자의 대상이 되며 ‘양반’ 신분이 갖는 상징자본의 몰락이 그려지고 있다. 경제자본의 몰락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상실을 초래하고 결국 양반의 상징 권력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허생전」 역시 허생의 빈약한 경제자본이 그의 처에 의해 도드라지는 지점까지는 「양

* 전북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반전」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허생은 무능한 정선 양반과 달리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선 후기 경제자본이 집중적으로 팽창되고 확대되는 사회상을 보여 준다. 동시에 「허생전」에는 허생이 양반으로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것과 양반으로서 지켜야 하는 예(禮) 사이의 딜레마가 행간 사이에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허생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도(道)와 덕(德)이 뒤따르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 후기 사회가 현실적으로는 경제자본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었지만 양반들은 여전히 성리학적 이념에서 ‘돈’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시대적 딜레마 속에 있었음을 허생을 통해 보여준다. 나아가 허생을 통해 문화자본의 실질이 ‘도(道)’와 ‘덕(德)’에 있음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상징자본의 몰락, 시대적 딜레마, 문화자본의 실질

I. 서론

「양반전」과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인 한문 단편으로, 학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양반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양반에 대한 비판과 풍자’라는 것에 집중하여 박지원의 작가 의식을 분석한 것이 대다수다.¹⁾ 다만 비판의 대상과 비판의 내용, 풍자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세밀한 해석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또

1) 이강엽, 「존귀함과 고결함, <양반전>의 인물 대립과 양반상(兩班像)」, 『한국고전연구』 제4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pp.65-95; 김용철, 「「양반전」의 우의와 풍자」, 『동양한문학연구』 제39집, 동양한문학회, 2014, pp.87-117; 정학성, 「<호질>과 <양반전>의 우언과 풍자에 대한 보론」, 『동양고전연구』 제69집, 동양고전학회, 2017, pp.179-202; 이원수, 「「양반전」의 풍자 전략과 작품 의미」, 『배달말』 제63집, 배달말학회, 2018, pp.311-336; 이주영, 「관계 분석을 통해 본 「양반전」의 재해석」, 『어문연구』 제4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pp.141-162.

한 「허생전」은 연암의 실학자적인 측면과 실학사상의 표출, 정치의식 혹은 작가의식 등에 집중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²⁾ 이 연구들은 「양반전」과 「허생전」을 분석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다만 본고는 조선 후기가 앞선 시기와 다른 경제관념이 싹트고 있었고 「양반전」과 「허생전」에는 그 어떤 작품보다 그러한 조선 후기의 경제관념이 농후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반전」에서는 ‘양반’이라는 가장 강력한 상징 권력이 ‘돈’으로 매매되며, 「허생전」에서는 양반 서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를 ‘돈’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자본의 위력이 두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개념을 통해 「양반전」에 나타난 비판과 풍자의 경로를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허생전」 역시 ‘자본’의 관점에서 ‘허생’이라는 인물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문화론과 사회학에서 거론되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상징자본’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암 작품을 읽어보고자 한다. 특히 연암이 작품 활동을 하고 연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라는 시대는 전대미문의 전쟁 경험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격동기이며 경제적으로 ‘자본’의 중요성이 부

2) 김문희, 「『허생전』의 정전화 과정과 방식 연구」, 『어문연구』 제4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pp.151-178; 김수중, 「〈허생전〉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민족어문학』 제5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pp.209-236; 김정호,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나타난 정치의식」,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대한정치학회, 2006, pp.265-290; 최천집, 「『허생전』 이상사회의 사상적 토대」, 『동방학』 제24집, 동방고전연구소, 2012, pp.111-142; 차충환, 「〈허생전〉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의 표출방식」,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7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p.233-263.

각되어 야담 등에서 치부담이 집중적으로 생겨나던 시기이다. 조선 후기 시대상을 바탕으로 ‘자본’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양반전」과 「허생전」이 지닌 작품의 의미 영역을 넓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자본

전통적으로 ‘자본(capital)’은 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수단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문화론과 사회학 분야에서는 자본의 개념이 확대되어 매우 탄력적으로 사용된다. 축적된 노동의 산물로서 사회활동에서 다양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은 모두 자본이라고 지칭되고 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투자된 유형, 무형의 자원’ 또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 구조 속에 깊이 새겨진 힘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본은 사회세계에 내재된 규칙성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로 개념화되기도 한다.³⁾ 이런 확대된 자본의 개념에 따라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 ‘학력자본’, ‘인적자본’ 등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파생되었다.⁴⁾ 이 중에서 사회학자들

3) 유석춘외 3인 공·편역, 『사회자본』, 도서출판그린, 2003, pp.62-63.

4) 학력자본이나 인적자본의 개념은 문화자본의 개념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속성을 서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유석춘 외 3인 공·편역, 위의 책, p.27 참조).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론적 의미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의 소유자	개인(자본가)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 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 소유자에게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	정보의 취득, 사회적

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특히 계급을 고착시키고 계급 간의 불평등성을 확대 재생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 자본을 ‘경제자본’과 대등하게 개념화하기에 이른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 Bourdieu)에 따르면, 경제자본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변환되며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자본이다. 문화자본은 교육적 자질의 형태로 제도화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정신과 신체의 성향 형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문화 예술적 가치가 물질화된 자본으로, 이 문화자본을 소유한 자의 이익은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이 가능하다.⁵⁾ 또한 문화자본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인 아비투스(Habitus)⁶⁾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지속적인 성향의 형태나 그림과 같은 객관화된 문화상품의 형태, 혹은 학위와 같은 제도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한편 사회자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연줄망이나 집단 멤버십에서 연원하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연결망으로 구성되고 신분의 호칭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된 자본을 의미한다.⁷⁾ 또한 ‘상징

주는 이익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가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연대와 결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 형태	물질적 대상(토지 및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	개별 행위자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 관계
연구의 핵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인 착취 관계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 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 유형
분석수준	구조(계급)	가족	개인/집단

5) 유석춘외 3인 공·편역, 앞의 책, p.65.

6) 아비투스(Habitus)는 인간 행위를 상징하는 무의식적 성향을 뜻하는 단어로,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가 처음 사용하였다. 이런 아비투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즉, 아비투스는 복잡한 교육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상속된다.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른 자본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이 세간으로부터 '인정'되었을 때 발생한다.⁸⁾ 이 모든 자본들은 그것을 축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동이 소요되지만 일단 축적되면 다양한 종류의 이윤을 얻는 데 유리하다.

조선 사회는 '양반'이 강력한 상징 권력을 지닌 사회였다. 양반들은 세습된 토지나 벼슬 진출을 통해 경제자본을 소유하였으며 다른 농·공·상인들과 구별짓는 문화적 취향을 세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자본과 문화적 취향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그들만의 강력한 사회자본을 구축하였고 사회적으로 양반의 제 자본을 인정받는 '상징자본'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런 견고한 양반의 상징 권력은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조선 후기에는 타고난 양반의 신분이 경제자본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되면서 신분과 부귀의 고착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18세기 초(1714년 경)에 이르면 한반도 거의 전 지역이 화폐유통권에 포함되었다. 또한 쌀이나 면포 등 현물로 냈던 세납을 화폐로 지불하는 금납화가 진행되면서 화폐가 교환 수단 상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다.⁹⁾

상품 화폐 경제는 상업발달과 더불어 봉건적인 신분체제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일반 백성이 국가에 대해 다량의 미속(米斛)을 내면 양반의 위계 혹은 관직을 취득하거나 현직 관리가 직접 납속하

7) 유석춘 외 3인 공·편역, 위의 책, p.65.

8) 채오병, 「부르디외의 국가: 상징권력과 주체」, 『문화와사회』 제26집 2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p.222.

9) 권인혁의 『조선시대 화폐 유통과 사회경제』(경인문화사, 2011, pp.219-242)를 보면 금납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거나 납속할 사람을 알선 모집하는 경우에 천관(遷官), 승직(陞職)을 허가하는 ‘납속보관(納粟補官)’이 제도화된다. 납속자는 신분에 따라 사족에게는 관직을, 공사천(公私賤)에게는 면천(免賤)을, 향리(鄉吏)·역리(驛吏)에게는 면역(免役)을, 제색군인(諸色軍人)에게는 상당직을 제수하거나 혹은 영직(影職)을, 또는 보충대에 입속(入屬)시켰다.¹⁰⁾ 조선 후기 사회는 이 제도를 통해 공식적이고 실제적으로 평민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납속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했다.

한편 양반의 신분이지만 경제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반들은 평민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소유한 양반에게 경제자본은 자연스럽게 함께 오는 것이었다.¹¹⁾ 그러나 임병양란 이후 조선 후기 사회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양반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는 양반의 측면에서 보자면 3대 이상 관직에 나가지 못하여 국가의 녹봉을 받지 못하는 몰락 양반들의 등장을 촉진하는데 「양반전」의 정선 양반이나 「허생전」의 허생이 바로 경제자본을 갖추지 못한 몰락 양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는 더 이상 ‘양반’이라는 신분이 경제적인 부를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꿈꿀 수 없었던 양반

10) 조자현,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 현실 및 세계 인식」, 한양대 대학원 박사 논문, 2012, pp.18-19.

11) 물론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을 제수받고 그것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제자본 소유의 방법이었으나 각종 음직이나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는 기존에 소유한 토지 등으로 양반들은 경제자본을 유지하였다. 또한 그들이 만든 사회자본이 구체적인 경제활동 없이도 경제자본을 산출하기도 하고,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엮인 사회자본이 또 다시 경제자본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순환 관계 속에서 조선 전기의 양반들의 자본은 계속 세습되었다.

신분을 살 수도 있는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징조를 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박지원의 한문 단편 「양반전」과 「허생전」이다. 기존의 ‘양반’은 경제자본 이면서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기능하며 가장 강력한 상징자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반’이 「양반전」에서는 풍자의 대상이 되면서 상징자본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허생전」에서는 문화자본의 최상위층에 위치한 인물 ‘허생’을 통해 경제자본의 중요성과 버릴 수 없는 문화자본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양반’이라는 상징자본의 몰락, 「양반전」

먼저 「양반전」의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선 양반은 글 읽기를 좋아하였지만 가난하다.
- ②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어 빚이 천 석에 이른다.
- ③ 관찰사가 순행하다가 환곡을 축낸 정선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한다.
- ④ 정선 양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기만 하고, 그의 아내는 양반의 무능함을 질타한다.
- ⑤ 마을의 한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산다.
- ⑥ 정선 양반은 양반 신분을 판 이후 천민의 비굴한 태도를 취한다.
- ⑦ 정선 군수는 양반 매매 증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양반이 지켜야 할 것들을 병기한다.
- ⑧ 부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자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해 준다.
- ⑨ 부자는 양반이 누리는 혜택을 듣고 도둑놈 같다고 하며 양반 매매를

중단한다.

「양반전」을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정선 양반의 모든 자본의 양상이 도 입부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드러난다.

양반(兩班)이란 사족(士族)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정선(旌善) 고을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군수가 새로 도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차렸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해마다 쌓여서 그 빛이 천석(千石)에 이르렀다.¹²⁾

정선 양반의 됃됨이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는 양반의 양반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질주의’와 연관된다. 귀족들은 자신들이 지켜오던 ‘본질’이라고 믿던 것들에 의해 특권을 누리오던 계층¹³⁾이라는 점과 연관시켜 본다면 양반들에게 다른 계층과 달리 자신들만이 지켜오던 본질은 바로 ‘독서’이다. 즉 사족으로서 선비를 다른 계급과 구별 지을 수 있는 것은 ‘글 읽기를 좋아한다’는 점이다. 글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는 문화적 바탕에서 성장했다는 뜻이며 어느 날 갑자기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족 집안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취향인 아비투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계층적, 계급적 분화에 은밀하게 작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타 계급과 구별 짓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계급을 재생산한다. 바로 이 점에서 ‘글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양반이 지니고 있는 문화자본인 동시에 문화자본을 유지

12) 「양반전」, 『연암집』 제8집, <방경각외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이하 원문 인용도 동일.

13) 뵘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새물결, 2006, p.57.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선 양반이 ‘어질다’는 진술은 정선 양반의 문화자본이 유의미한 것임을 암시한다. 게다가 새로 도입하는 군수마다 반드시 몸소 양반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는 언급은 정선 양반이 그만큼의 충분한 문화자본을 지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선 양반의 문화자본은 앞으로 진행될 서사에서 깊은 반전을 보여주는 바탕이 된다.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즉 문화자본이 충만한 정선 양반이 보여주는 반전은 풍자나 해학의 깊이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통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군수라는 인물은 정선 양반이 소유한 일종의 사회자본에 해당된다. 사회자본을 소유한 자의 이익은 정보를 획득하고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 지역 사회에서 군수와 연결된 결속이나 신뢰 관계는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선 양반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소유하고 있지만 경제자본은 매우 빈약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을 빌려 먹다 빚이 천석에 이른 상황이다.

요약하자면 「양반전」에서 정선 양반은 경제자본은 취약하지만 최소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갖춘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정선 양반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뒤이어 등장하는 관찰사와 양반의 아내에 의해 부정당한다. 먼저 관찰사가 고을을 순행하면서 환곡 출납을 조사해보고는 크게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미를 축냈단 말인가?(何物兩班 乃乏軍糧)”¹⁴⁾하고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한다. 사실 갚지 못하는 환곡을 해마다 빌려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환곡의 출납을 관리하는 관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묵인은 사족이라는 연결망으로 정선 양반, 정선

14) 「양반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군수 및 관찰사가 모두 사회자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관찰사는 정선 양반을 ‘物’로 표현하면서 그동안 관찰사와 연대했던 양반으로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뒤이어 ‘글 읽기’라는 양반의 문화자본도 양반의 아내에 의해 부정당한다. 정선 양반은 빚을 갚지 못해 잡아 간헐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밤낮으로 울기만 한다. 이에 그의 아내는 “당신은 평소에 그렇게도 글을 잘 읽지만 현관(縣官)에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生平子好讀書 無益縣官糴 咄兩班 兩班不直一錢)”¹⁵⁾이라고 한다. 다른 계층과 차별적 특징을 갖는 ‘글을 잘 읽는 것’이 곧 양반이 갖는 문화자본인데 그의 아내는 이것에 대해 혀를 차며 양반을 ‘한 푼짜리도 못 되는’ 값어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선 양반의 경제자본은 애초부터 빈약했고, 문화자본은 한 푼의 값어치도 안되며, 사회자본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자본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갖게 되는 ‘양반’이라는 상징자본은 이미 몰락하고 있음을 도입부에서부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반이라는 상징자본의 몰락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보여준 이후 전개되는 서술은 과장을 통해 해학과 풍자를 점진적으로 가중시키면서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양반이라는 상징 권력을 서서히 해체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이미 도입부에서 제시했듯이 정선 양반의 상징자본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정선 부자에게 ‘양반’은 아직 강력한 상징자본으로 기능한다. 부자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양반’이라는 상징자본의 힘을 여전히 신뢰한다.

15) 「양반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마을에 사는 부자가 식구들과 상의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높고 귀하며,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늘 낮고 천하여 감히 말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을 보면 움츠러들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뜰 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며,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욕을 보는 신세다.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이만저만 군육(窘辱)을 보고 있지 않으니 진실로 양반의 신분을 보존 못 할 형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양반을 사서 가져보자.”¹⁶⁾

그동안 ‘양반’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반은 그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코를 땅에 박고 기어 다녀야 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다. 그런 양반이었기에 마을에 사는 부자는 ‘양반’이라는 이름이 지닌 상징 권력을 믿고 있다. 부자는 경제자본을 소유하고 있지만 양반이 가지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지니지 못해 경제자본을 이용해 이를 사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신분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풍자성뿐만 아니라 이미 ‘物’의 나락으로 떨어져 한 톨어치도 못 되는 ‘양반’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부자는 자신의 경제자본과 교환하려는 시도에 풍자성이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상징자본의 몰락에 대한 서술과 상징 권력에 대한 믿음 사이의 간극에서 풍자성은 도드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적 풍자성은 다음 장면에서 확대·극화된다. 군수가 양반을 찾아가자 양반이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 아뢰며 감히 쳐다보지 못하며 벌벌 떨고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린다. 양반의 신분을 부자에게 팔아버린 양반이 천민에 걸맞은 비굴한 태도를 짓는 것인데 그의 과장된 행동이 웃음을 이끌어 낸다. 아무리 돈으

16) 「양반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로 양반을 팔았다고 해도 양반이 지니고 있던 문화적 취향은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 취향을 너무나 쉽게 버린 정선 양반의 비굴한 태도가 쓴웃음을 유발하며 그 웃음은 다시 양반이 지니고 있던 문화자본의 실질을 의심하는 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한편 쓴웃음은 부자의 양반 매매에 대해서 군수가 억지스럽게 인의지(仁義智)라고 칭찬하는 장면에서 더 크게 이어진다.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부자로서 인식하지 않은 것은 의(義)요, 남의 어려운 일을 봐준 것은 인(仁)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바라는 것은 지(智)라 할 것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양반이로고.¹⁷⁾

군수는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신분을 산 부자에게 억지스럽게 ‘仁, 義, 智’를 붙여 주면서 ‘군자’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한 짝으로 붙어 다니는 ‘인의예지’에서 ‘예(禮)’를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는 양반이 타 계급과 구별짓기를 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인데 ‘예’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자가 양반으로서의 ‘예’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며 이는 구매나 교환을 통해 한순간에 문화자본을 전유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¹⁸⁾

군수가 제시하는 양반의 예를 살펴보자.

17) 「양반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18) 예는 양반의 중요한 아비투스인 일종인데 예가 체화된 문화자본은 애초에 돈이나 재산권 혹은 귀족의 칭호 등과 달리 선물이나 유산 혹은 구매나 교환을 통해 한순간에 전유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아비투스를 매매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풍자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비루한 일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흠모하고 뜻을 고상하게 가지며 오경이
 먼 늘 일어나 유황에 불붙여 기름 등잔 켜고서, 눈은 코끝을 내리 보며 발꿈
 치를 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 듯이 《동래박의(東萊博議)》를 줄줄 외워야
 한다. 주립 참고 추위 견디고 가난 타령 아예 말며 이빨을 마주치고 머리
 뒤를 손가락으로 통기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 한 뒤 삼
 키며 옷소매로 휘양을 닦아 먼지 털고 털 무늬를 일으키며 세수할 땐 주먹
 쥐고 버르듯이 하지 말고 냄새 없게 이 잘 닦고 긴 소리로 종을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신발을 끌 듯이 걸어야 한다. 《고문진보(古文眞寶)》, 《당시
 품휘(唐詩品彙)》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자씩 쓴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 날 더워도 발 안 벗고 맨상투로 밥상 받치
 말고 밥보다 먼저 국 먹지 말고 소리 내어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
 찢지 말고 생과를 먹지 말고 술 마시고 수염 빨지 말고 담배 필 켜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고 분 나도 아내 치지 말고 성 나도 그릇 차지 말고
 애들에게 주먹질 말고 뉘저라고 종을 나무라지 말고 마소를 꾸짖을 때 판
 주인까지 싸잡아 욕하지 말고 병에 무당 부르지 말고 제사에 중 불러 재
 (齋)를 올리지 말고 화로에 불 켜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지 말고 도박하지 말라.¹⁹⁾

양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상의 행동거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대
 목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그것은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너무 많아
 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지침이 너
 무 직설적이고 세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양반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일종의 문화적 취향에 해당되는데 연암은 이것에 대해 한번 웃게 만들
 어 예의 근엄함을 해체한다.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세대 간 재생산을
 통해 구축되는 양반의 예들이 한순간에 해학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
 다. 특히 ‘가난 타령 아예 말며’, ‘양반은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19) 「양반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말라'는 언급은 그 자체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반이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정선 양반은 이 예를 철저히 지키는 바람에 양반 신분까지 팔게 되는 궁핍한 상황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역설적 웃음은 배가되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온통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 사항만 들은 부자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양반은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만 지키는 것이 양반이라면 형령당한 셈이라고 하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주기를 청한다. 여기에서 '신선'과 '이익'이라는 단어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 성리학을 숭상했던 유자들은 표면적으로 독서 교양인이 되기 위한 문화자본만을 강조하는 계층이었다. 그런 모습이 하층민에게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고고한 '신선'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사실 그동안 양반들은 문화자본이 충족된다면 경제자본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다. 문화자본에 해당되는 작시나 작문 능력이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길이었고,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경제자본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자는 '양반'이라는 자본이 주는 내포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에 '이익'이 되도록 문건을 고쳐 주기를 요구한다. 부자는 고고한 '신선'처럼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양반의 구체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정선 군수는 양반의 상징 권력에 대해 열거해 준다.

“하느님이 백성 내니, 그 백성은 넷이로세. 네 백성 가운데는 선비 가장 귀한지라, 양반으로 불려지면 이익이 막대하다. 농사, 장사 아니하고, 문사(文史) 대강 섭렵하면, 크게 되면 문과 급제, 작게 되면 진사(進士)로세. 문과 급제 홍패(紅牌)라면 두 자 길이 못 넘는데, 온갖 물건 구비되니, 이게 바로 돈 전대(纏帶)요, 서른에야 진사 되어 첫 벼슬에 발 디뎌도 이름난

음관되어 웅남행(雄南行)으로 잘 섬겨진다. 일산 바람에 귀가 희고 설렁줄에 배 처지며, 방안에 떨어진 귀걸이는 어여쁜 기생의 것이요, 뜨락에 흩어져 있는 곡식은 학을 위한 것이다. 궁한 선비 시골 살면 나름대로 횡포 부려 이웃 소로 먼저 갈고, 일꾼 뺏어 김을 매도 누가 나를 거역하리. 네 놈 코에 잣물 붓고 상투 잡아 도리질하고 귀알수염 다 뽑아도 감히 원망 없느니라.”²⁰⁾

양반들이 누리는 각종 ‘이익’이 마치 『홍부전』에서 놀부 심술 대목처럼 해학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횡포’라는 단어를 쓰며 ‘양반’ 일반에 대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양반으로서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거급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역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거급제를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시골에 사는 선비라고 할지라도 ‘양반’의 상징권력은 ‘횡포’를 부리는 것도 가능함을 역설한다. 양반의 신분인 군수가 자신의 입으로 양반의 횡포를 양반의 특권으로 나열함으로써 풍자성은 배가된다.

이어 양반의 각종 ‘이익’에 대한 부자의 마지막 대꾸는 양반에 대한 풍자적 비판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다. 양반의 갖가지 혜택을 듣고 부자는 ‘나로 하여금 도적놈이 되란 말입니까?’라고 하며 양반을 도적과 동일시한다. 「양반전」의 결말은 ‘부자가 평생 다시금 양반이란 소리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는 내용으로 맺는다. 이는 부자가 양반에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는지 보여주면서 가장 큰 풍자의 대상이 ‘양반’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되었다.

「양반전」은 1차적으로 돈 앞에서 찢찢매고 돈으로 양반 신분을 팔고 돈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무능한 정선 양반에 대한 풍자이다. 또한 ‘글

20) 「양반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을 잘 읽는' 문화자본이 환곡을 갚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이미 자본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만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풍자를 내포한다. 그러나 「양반전」은 다른 것은 무능하고 글만 읽을 줄 아는, 실생활이 전제되지 않는 문화자본 자체에 대한 풍자에서 그치지 않는다.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으로 전혀 환원될 수 없는 사회상에 대한 통찰이며 문화자본이 경제자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순간 사회자본의 토대도 무너지며 이는 곧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양반'이라는 상징자본의 몰락을 드러낸다. 따라서 「양반전」은 '양반'이라는 상징 권력의 해체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양반사회 전체로 풍자가 확산되면서 연암의 풍자는 강력한 사회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IV. 경제자본의 확대와 그 딜레마, 「허생전」

「허생전」에서도 「양반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입 부분에서부터 허생의 인물됨이 전체적으로 소개된다.

허생은 목적골에 살고 있었다. (중략) 초옥 두어 칸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였고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셈이다.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주려서 훌쩍훌쩍 울며 하는 말이 '당신은 한평생에 과거도 보지 않사오니 이럴진대 글은 읽어서 무엇하시려오.'²¹⁾

21) 「허생전」, 『열하일기』 <옥갑야화>,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이하 원문 인용도 동일.

허생 역시 ‘글 읽기만 좋아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허생이 지닌 문화자본을 암시한다. 아울러 ‘초옥 두어 칸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 채 서 있다’는 사실과 허생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자본은 매우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서생 허생’, ‘책 읽기만 좋아하는 허생’, ‘가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허생의 아내’ 등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봐서는 「양반전」과 다를 바 없는 서두 부분이다.

그러나 「양반전」과 달리 「허생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즉 「허생전」은 그야말로 ‘돈’을 중심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사실 「허생전」은 돈이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작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생전」은 마지막 어영대장 이완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면 모두 ‘돈’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중심으로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허생은 돈이 없어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생활한다
- ② 허생은 최고 부자인 변씨에게 1만 냥을 빌린다.
- ③ 1만 냥으로 각종 과실, 말총 등을 매점매석하여 10만 냥의 이익을 남긴다.
- ④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구입하여 또 열 배의 이익을 남긴다.
- ⑤ 도적 떼들에게 무인공도(無人空島)에 살 것을 제안하고 배에 30만 냥을 싣고 나타난다.
- ⑥ 천 명의 도둑들에게 각각 100만 냥을 주며 아내와 소 한 마리씩을 데려오게 한다.
- ⑦ 허생은 이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도적 떼를 이끌고 무인공도에 들어간다.
- ⑧ 섬에서 농사를 지어 3년간 먹을 식량을 남기고 나머지는 배에 싣고 일본

- 장기도에 가서 곡식을 팔아 은 100만 냥을 번다.
- ⑨ 도적 떼들은 섬에 계속 살게 하고 필요 없는 은 50만 냥은 바다에 버린다.
- ⑩ 허생은 섬에서 나와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
- ⑪ 10만 냥을 남겨 변씨에게 빌린 돈을 10배로 갚는다.
- ⑫ 변씨는 받은 돈을 맡겨 증식을 부탁하지만 허생은 거절한다.
- ⑬ 허생은 변씨에게 100만 냥을 어떻게 벌었는지 말해 준다.

「허생전」은 아내의 바느질 품삯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허생의 가난한 상황을 시작으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고리대금업, 무담보 신용대출, 매점 매석, 자금 운용 등 각종 화폐경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허생이 번 100만 냥의 돈은 당시 조선 경제에서 엄청난 액수였다. 18세기 초중반 조선에서 동전 유통량이 500만 냥 정도였다고 하는데²²⁾ 100만 냥이면 나라 전체 돈의 1/5인 것이다. 이렇게 「허생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은 18세기 당시 어떤 소설에서도 찾기 어려울 만큼 크게 확대되어 있다. 이는 조선 후기 경제자본이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

그런데 「허생전」은 이렇게 경제자본의 가치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허생을 위한 변명으로 채워져 있다. 문화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독서에 집중하며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아야 하는(「양반전」)’ 양반 신분 허생이 장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연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인 허생의 아내이다. 굶주림에 지친 아내가 허생에게 ‘한평생 과거도 보지 않을진대 글은 읽어서 무엇하시려요.’라고 하면서 허생이 견지하고 있

22) 국사편찬위원회,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p.76.

는 ‘독서’에 대한 허망함을 말한다. 허생과 그의 아내의 대화를 보자.

‘공장이 노릇도 못하신단 말예요.’하였다. 허생은 ‘공장이 일이란 애초부터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소’하니 아내는 ‘그럼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죠.’한다. 허생은 ‘장사치 노릇인들 밑천이 없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소.’하였다. 그제야 아내는 곧, ‘당신은 밤낮으로 글 읽었다는 것이 겨우 어찌 할 수 있겠소 하는 것만 배웠소그려. 그래 공장이 노릇도 하기 싫고,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 보는 게 어떻소.’하고는 몹시 흥분하는 어조로 대꾸했다. 이에 허생은 할 수 없이 책장을 덮어 치우고 일어서면서 ‘아아, 애석하구나. 내 애초 글을 읽을 제 십 년을 채우렸더니 이제 겨우 7년밖에 되지 않는군.’하고는 곧 문밖을 나섰다.²³⁾

허생이 기약했다는 ‘독서 십 년’은 양반으로서 문화자본을 충족시키려는 시간이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자본의 부족 앞에서 이 시간은 잠시 유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찌할 수 없다’는 허생의 나약한 대답과 ‘도둑질이라도 해 보라’는 아내의 일침이 교차되며 경제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족 서생이 가진 문화자본의 허약성이 도둑에 비견된다. 아내의 가난 하소연에 허생이 책장을 덮고 독서를 유보한다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상징적·차별적 취향을 덮는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허생의 경제자본 소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경제자본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화자본의 허약성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양반 신분인 허생이 경제자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담의 치산담에서도 양반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주인공인 경우, 일

23) 「허생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반적으로 이야기 도입 부분에는 주인공의 가문과 훌륭한 품성들을 이야기 하여 그들이 문화자본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그 문화자본에 걸맞은 경제자본은 갖추지 못하여 주인공이 얼마나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는다. 가난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은 이유는 대부분 가난으로 인한 아내의 비참한 모습을 보거나 가난 때문에 부모 봉양을 못 하는 불효의 상황을 설정하여 양반인 주인공이 상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또한 양반 주인공의 치산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문화자본을 유지할 수 없는, 또는 양반으로서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는 데 피치 못할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당위적 이유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²⁴⁾

또한 허생이 장안에서 제일가는 부자 변씨를 찾아가 만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장면도 주목할 만하다. 변씨는 일면식도 없는 허생에게 스스럼없이 만금을 곧바로 빌려준다. 이때 변씨와 변씨의 자제 및 빈객들의 반응이 흥미롭게 대조된다.

먼저 변씨의 자제와 빈객들의 시선으로 본 ‘허생’의 모습이다.

변씨의 자제와 빈객들은 허생의 꼴을 본즉, 한 비렁뱅이였다. 허리에 실 띠를 둘렀으나 술이 다 뺏혀 버렸고 가죽신을 켜으나 뒷굽이 자빠졌으며

24) 한편 양반이 아닌 계층들이 치산담의 주인공인 경우 치산 활동의 계기가 직접적이지 않다. 양반들이 가난으로 인한 불효나 아내의 비참한 모습, 과거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과 달리 계층이 낮아질수록 치산 활동의 계기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치산 후에 양반들이 다시 독서에 매진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이들 계층의 치산담은 치산 그 자체가 결말이 되고 있다. 간혹 경제자본 획득을 통해 양반의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 획득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양반들처럼 이미 어느 정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갖추고 있어 경제자본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양반과 달리 모든 자본을 새로 구축해야하는 하층민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망그러진 것애다 검은 그을음이 흐르는 도포를 걸쳐 있었는데 코에서는 맑은 물이 훌쩍훌쩍 내리곤 한다.²⁵⁾

허생의 초라한 비렁뱅이 같은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변씨의 자제들과 빈객들의 시각으로 본 허생은 한갓 비렁뱅이에 불과했다. 이러한 비렁뱅이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만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내포적 의미를 드러낸다. 이는 주변 사람들은 허생의 초라한 외모, 즉 허생이 가진 경제자본의 빈약함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편 변씨는 주변인들과 달리 허생의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엔 반드시 의지(意志)를 과장하여 신의(信義)를 나타내는 법이다. 그리고 얼굴빛은 부끄럽고도 비겁하며, 말은 거들함(거들함)이 일쑤이니라. 그런데 이 손님(허생)은 옷과 신이 비록 떨어졌으나 말이 간단하고 눈 가짐이 오만하고 얼굴엔 부끄러운 빛이 없음으로 보아서 그는 물질(物質)을 기다리기 전에 벌써 스스로 만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아마 그의 시도하려는 방법도 적지 않거니와 나 역시 그에게 시도함이 없지 않다.²⁶⁾

변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끄러움이나 비겁함이 없이 당당한 허생의 내적 가치를 본다. 특히 ‘물질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가진 사람(不待物而自足者也)’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물질에 구애되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양반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지식을 쌓는 ‘독서’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는 변씨가 허생을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문화자본이 충족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허생

25) 「허생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26) 「허생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이 ‘돈’이나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려는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허생은 변씨에게 빌린 돈으로 과실이나 말총 등 갖가지 물건을 매점매석하여 큰돈을 번다. 이미 허생은 변씨에게 돈을 빌릴 때 ‘시험해 볼 일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는데 결국 본인의 목표처럼 ‘하나의 시험’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겨우 만금으로 온 나라의 경제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알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구나.’라는 독백을 통해 허생이 이룩하고자 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음을 확인케 해 준다. 더 나아가 그 시험이 바로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었음을 암시한다. 나라의 경제 상황의 실재를 파악하고자 했던 실험이라고 한다면 허생의 상업 활동 역시 책으로만 했던 공부가 확장된 또 다른 공부의 한 방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허생의 목표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데 있지 않고 사족 유생이 갖추어야 할 문화자본을 확장하는 데 있었다. 다만 지향하는 문화자본이 「양반전」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허울뿐인 예의가 아니었다.

이는 벌어들인 돈으로 변산의 도적 떼 수천을 이끌고 무인공도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허생은 본인이 벌어들인 돈으로 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근심을 해결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적질을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아울러 도적에 대한 나라의 근심을 제거하는 것이다.²⁷⁾ 허생은 도적 떼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 집을 세우고 농사를 짓도록 해 놓고 섬을 떠나온다. 이때 허생은 스스로 ‘이제야 내 조금 시험해 보았구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보면 허생의 궁극적인 실험이 경제자본의 쓰임새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자본을 충분히 갖

27) 「허생전」에는 ‘허생이 이렇게 도적 떼를 데리고 사라지니 온 나라 안이 잠잠하였다’고 서술되고 있다.

춘 허생이 경제자본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허생을 창조한 연암의 실학자적인 면모가 평가되는 것이다.²⁸⁾

한편 사공이 사람이 없는 텅 빈 섬을 찾는 허생을 의아해하자 허생은 ‘덕만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찾아드는 거야. 나는 오히려 내 덕 없음이 걱정이야 사람 없음이 무슨 걱정이 될 건고.’라고 한다. 또한 변씨에게 빌린 돈은 만 냥인데 허생이 10만 냥을 갚자 변씨가 극구 사양한다. 이에 허생이 대답하는 말을 살펴보자.

‘재물로써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들이나 할 일이지. 만 냥이 아무리 중한데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한단 말야.’(중략) ‘그대(변씨)는 어찌 날 장사치로 대우한단 말인가.’²⁹⁾

위 구절들을 보면 허생이 중시한 것은 ‘덕(德)’과 ‘도(道)’임을 알 수 있다. 허생은 자신이 재물로 얼굴빛을 바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사치가 아니라 덕(德)과 도(道)를 중시하는 인간임을 자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양반전」과의 차이는 확인해진다. 주인공 허생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본의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오히려 양반의 문화자본의 본질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물로 보인다. 나아가

28) 김중은, 「연암 소설에 나타난 실학사상 고찰: 허생전,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2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1998, p.196. 이 논문은 「허생전」을 실학사상가로서의 박지원의 사회개혁 사상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소설로 보고 있다. 연암은 이 소설에서 주인공 허생을 통하여 봉건 말기의 낙후되고 침체된 사회 제도의 개혁과 부국유민의 이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생은 실학사상에 기초한 사회개혁이상을 가지고 그 실천적 활동에 나선 양반계층의 진보적 지식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9) 「허생전」, 한국고전번역원db(<http://db.itkc.or.kr/>)

진정한 문화자본이란 덕과 도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함의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허생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후에 10년을 기약했던 독서를 다시 이어서 하는 장면에서 더욱 문화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허생전」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허생과 이완의 대화도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허생은 변씨를 통해 어영대장 이완을 소개받고 이완에게 3가지 방책을 제안한다.³⁰⁾ 이 종결 부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헛된 대명 사대주의와 실리를 저버리고 예법에만 얽매인 정치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덧붙이자면 허생의 경제자본 취득이 단순히 개인의 이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이완을 등장시켜 연암 자신의 정치 비판적 시각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진정한 문화자본이 충족된 인물 허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인물임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허생전」은 18세기 경제자본에 대한 조선 양반사회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벼슬길에 막힌 양반의 경우 가난함을 이유로 경제활동,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추구해온 절대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 글을 읽던 허생 같은 서생이 장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

30) 3가지 방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허생은 임금에 천거한 인재에게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이완은 불가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허생은 명나라 장병들을 은혜롭게 생각한다면 조선에서 고독한 홀아비 생활을 하고 있는 명나라 장병들에게 종실의 딸들을 시집보내자고 하자 이완은 또다시 불가하다고 한다. 세 번째로 청나라에게 설욕하고자 한다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밋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만주족인 청나라가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국내의 자제를 뽑아서 만주족처럼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지식층을 청에 보내 그들의 상황을 살펴 국치를 씻자고 주장한다. 이 제안 역시 이완은 불가하다고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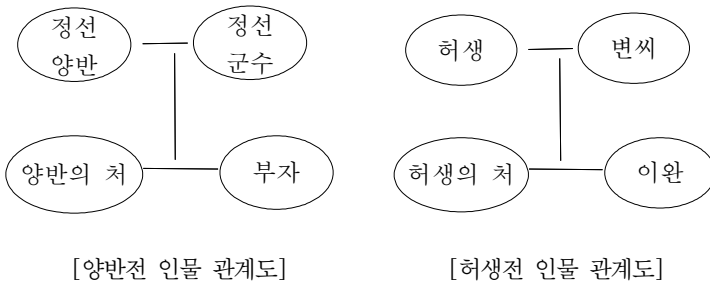
현실에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완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허생이 처한 가난을 아내를 통해 강조해야 했고 또한 허생의 상업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 문학적 장치를 통해 강조해야 했다. 그래서 허생의 상업 활동은 ‘하나의 실험’을 해보려는 시도가 되었고, 허생의 상업 활동을 통해 도적 폐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라의 근심을 해결했으며, 재물로 얼굴빛을 바꾸는 일반 장사치와 달리 덕(德)과 도(道)를 갖춘 인물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인물임을 암시해야 했으며, 마지막으로 필요 이상의 돈은 모두 버리는 행동을 감행하게 했다.

이는 18세기 조선 사회는 현실적으로는 화폐경제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사농공상에서 상인이나 상업을 가장 폄하하는 의식이 남아 있었으며 양반들의 성리학적 이념에서 ‘돈’이나 ‘이익’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시대적 딜레마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적 이유라고 할지라도 조선 후기사회는 이미 경제자본이 팽창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음을,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완이라는 인물을 통해 양반 지식인의 정책 제안도 큰 쓸모를 발견하지 못하는 쓸쓸함을 덧붙여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정치적 풍자를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제 인물들의 상관성과 풍자성

「양반전」과 「허생전」은 표면적으로 인물의 배치도가 비슷한 양태를 띤다.



「양반전」에서 중심인물인 ‘정선 양반’이 있다면 「허생전」에는 중심인물인 ‘허생’이 있다. 정선 양반과 허생은 공통적으로 문화자본은 강력하지만 경제자본은 취약한 인물로 등장한다. 두 인물을 통해 경제자본이 무너지면 문화자본도 지탱될 수 없는 사회상을 보여주지만 두 인물이 지니고 있던 문화자본의 실질은 달랐다. 연암은 정선 양반의 비굴함과 허생의 당당함을 통해 문화자본의 실질이 허식적인 ‘예’가 아니라 ‘도’와 ‘덕’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편 정선 양반과 허생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이 「양반전」에서는 ‘정선 군수’, 「허생전」에서는 ‘변씨’이다. 이들은 양반과 허생의 일종의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제도화되었건 혹은 제도화되지 않았건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신뢰나 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면 어느 집단에서나 존재한다.³¹⁾ 「양반전」에서 정선 군수는 정선 양반과 규범을 공유하는 같은 사

31) 집단의 ‘결속력’ 혹은 집단의 기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규범’ 나아가서 인습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의 존재는 사회자본을 창출해 내는 중요한 원천이다. 법률처럼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의 존재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유석춘 외, 앞의 책, pp.19-20, p.32).

죽으로서 ‘정선 양반’을 불쌍히 여겨 정선 양반을 위해 양반 문서 매매를 직접 도와준다. 「허생전」에서 변씨는 경제자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허생에게는 사회자본을 상징한다. 변씨는 허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완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양반전」과 「허생전」에 등장하는 양반의 아내나 허생의 처의 역할은 동일하다. 정선 양반과 허생이 지니고 있는 문화자본의 허약성, 즉 문화자본 만으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경제자본의 취약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경제자본의 빈약함을 도드라지게 해 풍자적 메시지를 전해주며 양반과 허생이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행동을 추동케 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작품 전반부에 첫 번째 풍자의 축을 이루고 있다.

다른 풍자의 축을 이루는 이들은 「양반전」에서는 양반을 돈으로 사려는 ‘마을의 부자’이며, 「허생전」에서는 ‘이완’이다. 즉 ‘정선 양반-마을의 부자’, ‘허생-이완’의 상호작용을 통해 풍자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풍자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난다. 「양반전」에서는 풍자가 문화적 취향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마을 부자’에서 시작되어 정선 양반을 넘어 양반 일반에게로 향하여 양반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무능한 문화자본에 허를 차는 수준이지만, 마을에 사는 부자는 양반이 지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양반의 지위에 대해 ‘도적놈’이라는 신랄한 평가를 내리는 인물이다.

한편 「허생전」에서는 ‘이완’에게로 풍자가 향하여 이완의 입을 통해 표상되는 조선 시대 인물 등용 등의 정치적 모순이 거침없이 드러난다. 당시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의리를 최고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완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는 명나라를 위하고, 청나라에 굴욕당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서 어느 것 한 가지

의 일도 불가하다는 사대부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박지원은 허생과 이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허위를 풍자하는 것이다.

「양반전」에서 정선 양반이나 「허생전」에서 허생은, 정선 양반의 처와 허생의 처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듯이 둘 다 표면적으로 같은 처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내의 가난 토로와 독서의 무용함에 대한 비난을 듣고 정선 양반과 허생의 대처 자세는 완전 다르다. 정선 양반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밤낮으로 울기만 한다. 반면 허생의 경우에는 아내의 비난에도 꺾꺾대며 책장을 덮고 가난을 해결해 보려는 적극성을 보인다.

정선 양반과 허생은 둘 다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하지만 문화자본의 질은 균질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화 자본’으로 상징되는 허생의 글 읽기는 ‘자기 신념’에 의한 것이지만 정선 양반의 글 읽기는 형식적이었음을 결과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도 허생의 경우에는 ‘하나의 실험’을 마친 후에 다시 양반 본연의 ‘글 읽기’로 되돌아오지만, 정선 양반은 풍자의 대상만 되고 이야기가 끝난다. 정선 양반은 조선 후기 모래성 같은 문화자본의 허약성을 대변하듯 실제 어떠한 주동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자본과 경제자본을 대변하는 군수와 부자의 역할이 주동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양반전」과 「허생전」을 ‘자본’의 개념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두 작품을 통해 연암의 비판과 풍자 정신을 살펴본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조선 후기 경제자본의 위력과 그 동안 양반들이 견지했던 문화자본 사이에서의 갈등과 딜레마를 통해 두 작품의 비판과 풍자의 경로를 추적한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 김문희, 『〈허생전〉의 정전화 과정과 방식 연구』, 『어문연구』 제4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pp.151-178.
- 김수중, 「〈허생전〉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민족어문학』 제5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pp.209-236.
- 김용철, 「〈양반전〉의 우의와 풍자」, 『동양한문학연구』 제39집, 동양한문학회, 2014, pp.87-117.
- 김정호,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나타난 정치의식」,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06, pp.265-290.
- 김중운, 「연암 소설에 나타난 실학사상 고찰」, 『청람어문교육』 제2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1998, pp.185-209.
- 빠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새물결, 2006.
- 유석춘 외 3인 공편역, 『사회자본-이론과 쟁점』, 도서출판그린, 2003.
- 이강엽, 「존귀함과 고결함, 〈양반전〉의 인물 대립과 양반상(兩班像)」, 『한국고전연구』 제4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pp.65-95.
- 이원수, 「〈양반전〉의 풍자 전략과 작품 의미」, 『배달말』 제63집, 배달말학회, 2018, pp.311-336.
- 이주영, 「관계 분석을 통해 본 〈양반전〉의 재해석」, 『어문연구』 제42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pp.141-162.
- 정학성, 「〈호질〉과 〈양반전〉의 우언과 풍자에 대한 토론」, 『동양고전연구』 제69집, 동양고전학회, 2017, pp.179-202.
- 조자현, 「조선 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 현실 및 세계 인식」, 한양대 박사 논문, 2012.
- 차충환, 「〈허생전〉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의 표출방식」, 『한국의 민속과 문화』 제7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3, pp.233-263.
- 채오병, 「부르디외의 국가: 상징권력과 주체」, 『문화와사회』 제26집 2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pp.217-260.
- 최천집, 「〈허생전〉 이상사회의 사상적 토대」, 『동방학』 제24집, 동양고전연구소, 2012, pp.111-142.

Abstract

The Aspects of Capital in Jiwon Park's *Yangban-jeon* and
Heosaeng-jeon

Kim, Young-mi

Yangban-jeon and *Heosaeng-jeon*, Jiwon Park's (his pen name is Yeonam) major works richly reveal a sense of economy of the late of Chosun period. In their works, the power of capital is a medium leading narrativ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dea of not only 'economic capital', but also 'cultural capital' which has differentiated noblemen (yangban) from other classes, 'social capital' which has created social unity and bondages in the Confucian scholars' group, and 'symbolic capital' which is socially accepted only in the case of having previous three capital.

The nobleman's status itself was a powerful symbolic capital. which worked as an economic capital,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But in *Yangban-jeon*, 'the reading' which worked as the nobleman's typical characteristic was useless for solving poverty of economic capital. This work describes the fall of symbolic capital which the status of nobleman in Jeongsun is naturally involved with because his economic inability is satirized by the mayor, his wife, and a rich man who wants to buy the status of a nobleman.

Heosaeng-jeon is substantially identified with the content of *Yangban-jeon* until Heosaeng's poor economic capital is magnified by his wife. However, unlike the nobleman in Jeongsun, Heosaeng took part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revealed that economic capital was largely enlarged and expanded in the late Chosun period. But in *Heosaeng-jeon*, the dilemma of making money as a nobleman and observing good manners is overlapped between lines. This means that his economic

activity is not only for his advantage. It was because Chosun was moved into the society of monetary economy in reality. However, noblemen at the time lived in the dilemma in which they could not put an emphasis on money under the idea of neo-Confucianism. In addition, the essence of cultural capital advocates a moral doctrine and virtues through Heosaeng.

Key word: Park Jiwon(朴趾源), *Yangban-jeon*(兩班傳), *Heosaeng-jeon*(許生傳), economic capital, cultural capital, social capital, symbolic capital, the fall of symbolic capital, dilemma at the time, the essence of cultural capital.

김영미

소속 :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강의전담교수

전자우편 : ijiu98@hanmail.net

<p>이 논문은 2019년 8월 20일 투고되어 2019년 9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9월 20일 게재 확정됨.</p>
--